



FTA가 멕시코 양돈산업에 미친 영향

1.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멕시코 정부는 2003년 11월 일본과의 FTA 체결을 끝으로 더 이상 FTA 추진은 없다는 이른바 FTA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했다. 멕시코는 지난 1992년 12월 미국·캐나다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여 1994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NAFTA 체결이후 시장개방에 고무된 멕시코는 2003년 11월까지 무려 3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NAFTA이후 32개국과 FTA 체결이후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국내 반발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멕시코는 NAFTA 체결을 시작으로 32개국과 FTA 체결에서 농업부분을 너무 많이 양보하는 바람에 그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농업은 일반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으며, 농산품은 일반상품과는 달리 문화이고 사회 안전망이며 국민의 생존기반인데 이러한 중요한 영역이 지금은 대부분 외국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NAFTA 이후 32개 국과 FTA 체결은 가장 취약 영역인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파멸(destroying)시키고 있다. FTA 체결에서 멕시코는 농산물 수입으로부터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위생과 검역(SPS), 지속적 정부의 보조는 물론 합리적 규제까지도 이행기간을 거쳐 거의 모두 제로베이스(Zero Base)로 양보하였기 때문에 멕시코의 농산물시장은 수입농산물로 범람되었고 농민 130만 명이 농토를 잃고 도시에서 불법노동자, 불법노점상, 노숙자로 전락하였다. 특히 경쟁력이 지극히 취약한 멕시코 농업은 인접 농업



정찬길 원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

강국인 미국과 캐나다와 NAFTA를 통해서 통합되어(integrated) 경제적 속국이 되어버린 사례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와 FTA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교훈을 주고 있다.

NAFTA와 32개 국과의 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양돈산업도 그 피해를 피해갈 수 없었다. 자유무역협정 과정에서 멕시코의 돼지고기 수입 제한도 크게 완화되었다. 1994년 1월에 발효한 NAFTA에 의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된 번식용 돼지에 대해 관세가 제로로 설정되었다. 한편 생돈, 돈육 및 돈육가공품(발효 이전은 기본적으로 20% 증가세 적용)에 대해서는 발효 이후 10년간은 일정 수입수량까지 저율 관세를 적용하고, 이 수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20%(일부 제외)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수량(관세할당범위)은 매년 3% 확대되며, 또 할당내 세율도 10년간에 철폐된다(2001년은 4%). 국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01년은 이미 4월에 냉장돈육이 할당수량 3만 톤을 초과하였으며,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20%의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2. NAFTA이후 양돈산업의 변화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돼지사육, 돼지고기 생산, 돼지고기 수입, 수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돼지의 사육두수는 2000년 16,087천두에서 2004년 10,668천두로 33.7%나 감소하였으며, 돼지고기 생산은 1,035천톤에서 1,150천톤으로 11.1%가 증가하였다. 또 같은 기간에 돼지고기 수출은 59천톤에서 52천톤으로 11.7%가 감소한 반면에 돼지고기 수입은 276천톤에서 548천톤으로 98.6%나 폭증하여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8.4배나 되어 NAFTA 이후 멕시코는 돼지고기 대량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이처럼 크게 늘어난 돼지고기 수입은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NAFTA가 양돈산업에 미친 영향

멕시코 양돈경영은 1970년대에는 기술도입 등에 의한 근대화가 진행되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1983년에는 약 114만 톤의 지육생산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생산이 확대된 것은 양돈농가의 사료원료 구입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와 돈육 수입허가제도에 의한 수입제한 등 국산 돈육산업의 보호정책 때문이었다.

경제위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긴축을 실시함에 따라 1984년에 사료구입보조금이 중단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돈육생산은 감소하여 1990년에는 약 79만 톤까지 떨어졌다. 그 사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에 의한 돈육소비 감소한 것과 1988년에 돈육의 수입허가제가 폐지되어 관세가 일시적으로 제로가 된 것 등이 국내 생산 감축을 더욱 가속시켰다.

그 후 경제회복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회복되고,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도 1992년에는 20%로 인상되어 돼지고기 생산은 확대 기조였지만

경쟁력이 지극히 취약한 멕시코 농업은 인접 농업강국인 미국과 캐나다와 NAFTA를 통해서 통합되어 경제적 속국이 되어버린 사례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와 FTA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훈을 주고 있다.

〈표 1〉 멕시코의 돼지고기 수급 (단위 : 천톤)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생산	994	1,035	1,065	1,085	1,100	1,150
총 수입	190	276	294	325	371	548
총 공급	1,184	1,311	1,359	1,410	1,471	1,698
총 수출	53	59	61	61	48	52
총 소비	1,131	1,252	1,298	1,349	1,423	1,646
수급 현황	1,184	1,311	1,359	1,410	1,471	1,698

자료 : www.usda.gov

1994년 통화위기와 수수 가격의 상승으로 1996년에는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을 하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양돈농가호수의 감소를 초래하였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 규모의 양돈농가가 폐업 혹은 전업을 하는 한편 경영능력이 있는 양돈농가에 의해 사육규모의 확대나 농가간 조직화로 수평적인 통합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농가조직이 임의조합을 조직, 생산에서 도축처리까지 관장하는 돼지고기 생산의 수직적인 계열화도 진전되었다. 1990년대는 합리화된 양돈농가가 생산력을 제고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1994년 NAFTA의 발효도 멕시코 양돈산업의 구조변화를 촉진시켰다. 즉, 미국이나 캐나다의

생돈이나 돈육 수급동향이 멕시코 국내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1998~1999년 미국의 생산 증대로 돈육가격이 대폭 하락한 때에는 멕시코 국내 식육업자가 저가격인 미국산 생돈 수입을 늘려 멕시코의 중소 양돈농가의 탈락을 가속화 시켰다.

미국의 동물과 육류의 대 멕시코 수출에 대한 NAFTA의 무역규제들이 종료됨에 따라 돼지고기 생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되었다. 멕시코의 돼지고기 국내생산이 지난 6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멕시코 돼지고기 생산량 대비 수입돼지고기의 비중이 1996년에는 6%에 불과하였던 것이 1999년에 19%, 2001년 28%, 2004에 48%로 돼지고기 수입의 폭발적 증가에 의한 국내 돼지고기 생산업이 크게 압박을 받고 있음은 물론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멕시코 양돈산업이 생존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너도나도 위생관리 믿고찾는 우리돈육